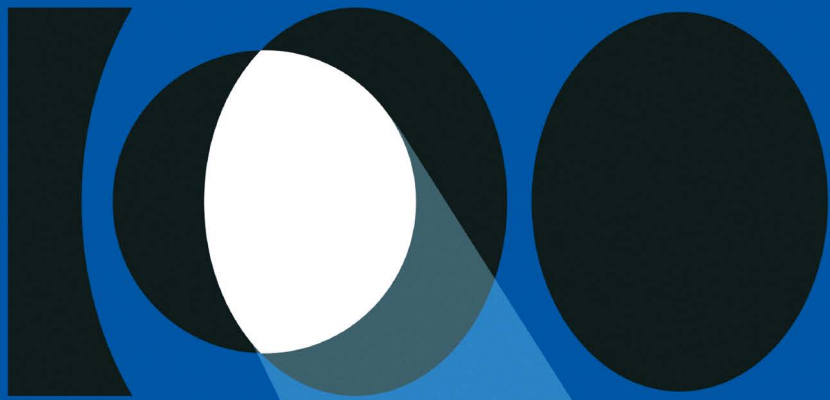




SAMYANG

당신의 오늘에 삼양의 100년을

어제보다 오늘, 당신의 삶이 더 나아졌다면
그건 어쩌면 삼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삼양은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패키징 분야에서 100년의 노하우를 담은
스페셜티 소재와 기술로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합니다.”



단기 4357년(서기 2024) 11월 발간

필암서원 산양회보 제41호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筆巖書院 山仰會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제41호 목차 －

오늘에 필요한 주인정신 2

초헌관 박준영(전 전라남도지사)

인의사상(仁義思想)(홍익+사랑)의 부활만이 시대정신이요, 7

어지러운 한국사회 나침반이다!

신광조(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공동대표)

학교 교육에 감금된 아이들..... 20

－ 아이들은 놀고, 배회하고, 질문하고, 유능해진다

70~80대 노인이 50대로 돌아간 비결 36

필암서원 산양회 소식 41

필암서원 산양회 홈페이지 개통했다..... 51

연회비 5만 원만 입금하시면 회원가입 됩니다.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51-1175-2599-63)

社團法人 筆巖書院 山仰會

(57223)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전화 061-394-0833 발행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오늘에 필요한 주인정신

초헌관 박준영(전 전라남도지사)

우리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 중 한 분이신 하서 김인후 선생님을 추모하는 필암서원 추향제에서 초헌관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도백이 되어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이 이곳 장성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여기 계시는 노강 박래호 선생님께서 “장성에 나노 산업을 좀 유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노 산업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5가지 기술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4번째 산업이 바로 나노 산업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첨단산업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 BT(bio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CT(Culture technology 문화기술), 그리

고 나노 기술(nanotechnology 나노기술)과 우주항공기술(aerospace technology)은 그때만 해도 생소한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자로서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 노강 선생님이 갑자기 나노 산업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호남이 역사를 개척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온 국민이 잘살도록 힘을 썼던 바로 그 주인 정신을 이어받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장성에 나노바이오 연구원을 건립하고 나노 산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노강 선생님의 큰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박수 한 번 크게 쳐주십시오.

저는 노강 선생님이 나노를 어떻게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곳 장성 출신 박태영 전 도지사님께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 산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싶고,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그런 자세가 장성에 나노 산업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장성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노강 선생님께서 왜 저를 만나자마자 그런 주문을 하셨을까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분께서 여러 가지 유교 전통과 교훈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못지않게 장성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분이 왜 미래를 생각하실까요? 장성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당신은 주인입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셨다는 것을 책에서 읽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갈리는 순간이지요. 호텔 손님들은 불을 피해서 빨리 다 떠납니다. 하지만 주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화재진압을 해야 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방조치도 해야 하고, 끝까지 현장에 남아서 수습과 재건의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주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또 저 자신에게 항상 “당신이 주인이냐?”고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엄청난 역

사적인 시련을 겪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저는 역사책을 읽어보면서 조선 왕조를 잃었던 왕들이 정말 우리 민족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 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몇 사람 없습니다.

우선 세종대왕이나 정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인 사도 세자를 그렇게 죽여서 대단히 나쁜 왕으로 생각하는 영조도 역사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말기로 내려올수록 왕들은 전부 백성의 삶보다는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나랏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고종과 이완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고종도 나라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왕입니다. 고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양성하는 데 돈을 얼마 써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경복궁을 수리하는 데는 돈을 많이 쓰고 사람들을 더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대한제국)이 일본에 넘어가도록 나라를 망친 최악의 군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

던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종과 이완용이 걸어간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윤봉길 의사가 2살, 3살, 4살 되는 애들을 집에다 두고 독립운동하겠다고 길을 떠나면서 남긴 글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음속으로 엄청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낸 사실도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절대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굴지 마라.”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와 고종의 부인 민비를 비교해 볼 때 누구를 주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훌륭한 선조 두 분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다 같이 30대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그리고 고종과 이완용 중 누구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기억하려고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매국노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완용이나 고종의 후예들은 오늘날 어디 가서 큰소리치거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두 분의 가족들은 지금 국가가 떠받치고 국민이 존경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라남도과 장성군에 혹은 우리 면면에 정말 주인들이 많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이 없거나 적어지면 나라의 미래보다는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자리에서 인촌 김성수 선생님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님은 제가 알기에 선조가 바로 장성 출신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고창의 부잣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가셔서 부를 일구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손자인 김성수 선생님이 커서 보니 이 나라가 이미 일본에 먹힌 상태였지요. 그래서 해외로 공부하러 갑니다.

우리 왕조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도 안 둘 때, 일본은 이미 근대화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와서 김성수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회사를 짓습니다. 회사와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근대화의 길을 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뭘 했느냐? 동아일보를 창간합니다. 그때 언론사 경영

은 누가 엄두도 못 낼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왜 이분이 동아일보를 만들었을까?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에 그때의 과정을 기억하고 조사를 해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선생님은 동아일보를 창간하면서 세 가지 사시社是를 내 걸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엄두에 두고 언론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제일 먼저 주장하고 강조한 개념이 뭐냐 하면 민족주의입니다. 사시의 1번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 민족을 얘기하면 다 반역자로 낙인찍히고 잡혀갔어요. 그럴 때 민족주의를 내건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또 왜 내걸었겠습니까? 왕조를 오래 하는 동안에 망하는 길밖에 가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 즉, “국민이 주인이다.”입니다. 동아일보는 왕조를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권재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의 사시로 민주주의를 내건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주의입니다. 저는 이걸 쭉 엮을 때 읽어보고 놀랐습니다. 이분이 신문을 창간할 때는 신문이 국민을 계몽하는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인촌 선생께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며 장차 우리

국민이 문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문화주의를 표방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신문 사설을 거의 매일 봅니다. 세상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보려면 사설을 봅니다. 인촌 선생께서 동아일보를 창간하시면서 제창하신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애정과 혜안이 없으면 불가능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촌 김성수 선생님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여러분 모두 장성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전라남도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농어촌은 거의 인구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에도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군수, 도지사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년, 200년, 300년 뒤를 생각하면 적어도 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혈통이 아닐 가능성이 큼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단일 민족이 아

됩니다. 얼마 있다 보면 군의원이나 도의원 또 한 백 년 지나면 군수, 도지사가 우리 한민족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혈통일 수도 있고, 미얀마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런 세상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왜 인구가 소멸해 가는 지역에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살게 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냐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수도권은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전철 공짜로 태워줍니다. 또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버스를 타면 처음부터 할인해줘요.

제가 엿그제 본 뉴스 중 하나로 서울시가 경로당에 주 5일 동안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려 하겠습니까? 수도권을 떠나려 하겠습니까?

다른 많은 선진국은 지역과 수도권이 같이 발전하는 것을 국가 기본 정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수도권 지자체가 노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은퇴자들이 시골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

선은 “지방에 내려가 활동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 좋겠다.” 또 “지방 농어촌부터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 학생들이 대학을 갔을 때는 바로 장학금을 주자.” “미국처럼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갈 때는 반으로 깎아주자.”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권하는 측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라의 주인 의식이 없습니다. 맨날 싸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장성이 변영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나 주인이냐는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의를 추구했던 윤봉길, 안중근 의사 같은 분과 내 이익만을 추구했던 고종, 이완용 같은 사람을 반드시 구분해서 서서 부와 권력보다는 명예와 헌신을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고 이어온 전통, 특히 하서 선생님의 유산이라든가 가르침을 잘 전승하면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밝은 앞날을 가꾸어 가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4년 9월 20일 필암서원 청절당

인의사상仁義思想(홍익+사랑)의 부활만이 시대정신이요, 어지러운 한국사회 나침반이다!

신광조(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공동대표)

들어서면서

오늘 제 어쭙잖은 강의가 스님들 앞에서 묵탁 두드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는 후배도 있구나 하고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유교사상을 그리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만큼 한문 공부를 그리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유교의 ‘인仁’ 사상의 진정한 실천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논의해보는 것은, 갈 길 몰라 헤매는 나라나 지역, 그리고 개인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 생각으로는 특히 우리국민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포용包容’과 ‘관용寬容’의 정신을 유교의 기본 가르침이자 실천윤리인 ‘仁’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교의 으뜸 정신인 ‘仁’의 의

미를 실천하여 타인을 널리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여, 우리가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의 참 뜻을 새겨 본받고자 합니다.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仁’ 사상의 의미

‘인仁’은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둘 이상 모여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은 본래 ‘인간적인’, ‘인정이 많은’, ‘친절한’ 등과 같이 사람사이의 관계가 편안하거나 유익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자사상의 핵심입니다. 대체로 공자가 말한 인은 공경함·공손함·관대함·신실信實·소박함·민첩함·자애로움·용기·충서·정직·효성심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즉 연민을

仁의 실마리이다”라고 합니다. ‘仁’에는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다워지기 위한 모든 특질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역지사지’나 ‘자기가 서고자 할 때는 남부터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할 때는 남부터 이루게 한다.’는 군자의 공평한 사랑을 실천하는 요령입니다.

우리가 ‘인’사상에서 놓쳐서 안될 급소는, ‘극기복례克己復禮’입니다. 자기본능이나 욕망을 이겨내고(극기), 예禮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아를 확립하고 자신을 불태워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는 남에 앞서고 이득은 남에 뒤지려 해야, 인仁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겨야 할 것은, ‘仁’은 한결같이 남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극복하며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다시 ‘인仁’의 사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사회통합의 힘과 신뢰가 실종되어버린 오늘의 대한민국”

• 2024년 노벨문학상은 한 강이 받았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MIT공대의 사이먼 존슨입니다. 같은 대학교수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과 공동수상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을 부인으로 둔 존슨교수는, 1997~1998년 사이에 한국에서 근무

했고, 최근에도 한국을 여러 번 방한한 경험이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1960년도까지도 한국은 매우 가난했고, 독재정권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민주화를 시도했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존슨 교수의 분석입니다.

“한국 경제발전은 어렵고 골치 아픈 과정이었고,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면서도, “현재 한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놀랍다.”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강의 기적에 놀라워합니다.

한국의 성공에 대한 관점은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책은 경제제도를 ‘포용적(inclusive)제도’와 ‘착취적(extracting) 제도’로 구분하고 한국과 같은 성공한 국가들은 모두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재산 착취를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시민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 등에 해당되는데, 이 책 저자들은 남한과 북한을 주요 예시로 들면서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발전의 축이 되었던 ‘포

용적 경제시스템 제도'가 '인仁'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남북은 분단되기 전에는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차이로 남북한 경제규모는 10배 이상 차이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민주화에 속도를 내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치권력자의 국민을 향한 헌신,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등 유교의 인의 정신 발현이 경제풍요와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으며, 또 한국의 고령화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는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도 북한의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현재 빈곤하고 억압적인 상황이나 겉으로 체제는 굳건합니다. 북한의 제도는 사회에는 나쁘지만, 그 제도를 통제하는 김정은 등 권력지배층에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지만, 지배체제 도전은 불확실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북한은 중

무장했고, 핵무기 능력과 로켓 발사능력을 확보했거나 구축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리더십이 민주주의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이 위험한 상황 1호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물음에서, “경제 불황, 사회양극화, 청년실업, 불안심리 등으로 인한 저 출산 등의 원인이 포용적이지 못한 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삼성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10개 이상 출현해야 하는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며 혁신을 장려해 지속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포용적인 정치제도를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벨상 수상자 이분들의 훌륭한 이론을, “제도라는 것이 잘 꽃피워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토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보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경제발전의 속도와 성과(Y)를 이런 함수로 정리해 봅니다.

$Y = F(X)$ ($X = X_1, X_2, X_3, X_4, \dots$ etc.
 $X_1 =$ 리더십, $X_2 =$ 제도, $X_3 =$ 인적·물적 자원, $X_4 =$ 국민 마인드, 사회적 신뢰자본).

한국의 나아갈 길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岐路에 서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복합적인 초특급 위기와 단군 이래 ‘세계 대국’의 꿈이 동시에 넘실거리는 분기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그리도 목말라했던 자주독립국가, 절대 가난탈출, 시민자유 그리고 세계적인 대한민국 그 성공이 완성되는 이 순간, 다시 초특급의 총체적·복합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좌표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는 혼란하고 피폐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품격을 잃었고 부끄러움 없이 허세를 부리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접하며 스스로 영혼의 근육을 파괴해 왔습니다. 문화적 허욕과 사회적 무책임, 정치적 팬덤화, 여론·언론의 경망스러움을 키워오며 우리의 자화상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휘청거리는 오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 치르는 허망한 대가이며 성장의 고통 없이 이론 욕망의 속 모습입니다.

공격성 강한 동물성사회로 변해 치러야 하는 엄청난 사회비용

저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물질

적 측면보다는 정신적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전통사회의 특징이었던 ‘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을 재해석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병폐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비책으로 써먹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선과 오만 그리고 닫힌 마음에 있습니다.

역지사지가 아닌 유아독존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선의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는 데 있습니다. 공존과 화해가 아닌 대립과 반목, 경쟁과 갈등에 있습니다. 타협과 양보가 아닌 승자독식과 우월주의에 있습니다.

식물성 평화 사회가 아닌 동물성 폭력 사회, 급박함 포악함이 폭발합니다. ‘내 탓이요’는 별로 없고, 책임전가와 상대공격이 난무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1945년 8월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북 분단을 겪으면서 냉전의 국제 전쟁터가 되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눈치와 생존만이 전부인 피난사회를 겪었습니다.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좌우이념의 대립으로 민족이 둘로 쪼개져 다시 하나가 될 전망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근 80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해에도 많은 균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의

무계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권 상실의 책임전가 편집증, 식민주의 역사왜곡의 자력 근대부정,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싼 해방정국의 혼돈, 항일 독립전선의 구심이던 임시정부의 실종,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의 긴 파장, 독재와 경제개발의 상관관계 의혹, 민주화를 둘러싼 이념대립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슈가 뒤얽힌 역사, 누가 과연 한 칼에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난마와 같은 역사 탓인지 지금까지 근대와 현대를 잇는 작업조차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건설적으로 승화되지도, ‘정·반·합’적으로 통합되지도 못했습니다.

정치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우리나라 처럼 권력지향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약탈적이고 독점적이고 쟁투위주로 되어 있으니 사회 또한 부박해져왔습니다.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요, 조화입니다.

좌우 이념대립에 이어, 영호남 지역 갈등, 빈부, 노사, 세대, 남녀 갈등, 남남 갈등이 모든 사회시스템에 암초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며,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져 국가는 왜소해지고,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 경험 또한 일장춘몽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는 어제의 유산과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희망을 책임져야 합니다. 상인적 현실감과 서생적 문제인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을 함께 볼 때만, 수단이 생기고 수數가 납니다. 언젠가는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까지 미래 세대가 감당할 고통과 손실의 비용이 너무 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탈출구의 실마리를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에게서 찾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나워졌습니다.

상대를 제압해야 합니다. 한국만큼 경쟁지상주의 약육강식의 사회는 지구상에서 찾기 힘들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세상입니다.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은 식물,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가 한강은 이 모티브를 이상李箱의 시에서 따왔다고 말합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이 아니라 공존공생의 식물이 되고 싶다는 게 채식주의자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작가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햇살과 눈물은 고통 받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넘어 동식물에까지 파사롭고 가슴 아프게 적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 별건 야수가 되어 먹이를 찾고 다투는 인간들이 대장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이고 폭력입니다.

나무가 살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땅에 밭을 굳건히 딛고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사라진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안식과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지게 하는 원천적 힘은 어디에 있을 까요? 생각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높고 넓고 깊고 뜨거운 생각을 갖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사상인 ‘인仁’을 현대적 삶에 맞게 재해석하여, 지도자부터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인’ 사상을 숭선수범한 선배분들의 뜻을 잘 계승·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인仁’ 사상, 특히 포용과 관용 정신 실천 영웅들

알렉산더 대왕(기원전 356년~기원전 323년)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으며, 인류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사 지휘관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자기 자신이 인

간이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 즉 신이라고 믿었으며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최선두에 서서 눈에 띄는 황금 갑옷을 입고 싸울 정도로 겁이 없고 용맹하였습니다.

5만 명도 안 되는 마케도니아의 군을 이끌고 동원가능병력이 수십만에 이르는 광대한 페르시아제국 전역을 7년 만에 정복하였습니다. 기록으로 정확하게 전해지는 전투만 40여 번을 벌여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 대부분 원정에 병력 열세라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본인이 선두에 서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서구 철학사에서 플라톤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책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해 전쟁과정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수학, 과학, 논리학을 포함해 현대문명의 핵심 근간이 된 서양 문명 발전은 알렉산더 대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여인들은 눈이 아플 만큼 아름답다.”고 탄복을 하였으나 거리를 두었으며, 식욕 또한 필요한 만큼만 먹고, 그 이상 낭비는 안 하였습니다. 물욕이 없는 만큼, 베푸는 것의 기쁨을 잘 알아 주위의 인물들에게 지나치리만큼 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잡힌 포로를 죽이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과 의류를 충분히 주고, 자신의 병사보다 더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은 뛰어난 전투기술보다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도 깊었습니다. 한 병사가 피병을 부려 전역하려 한 것이 걸렸는데, 그 사유가 고향에 두고 온 연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대왕이 이를 용서하며 전역시켜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점령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귀족들에게도 융화정책을 펴서 그들의 충성을 얻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감화되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도 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들에게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많은 토지를, 어떤 자에게는 한 마을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항구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부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자신을 위해 무엇을 남겨 놓으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희망을 남겨놓았다고 말하자, 부하들이 “그럼 전하와 함께 종군하는 저희들도 그 희망을 나누어 갖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모을 수 있었던 거의 모든 문헌을 수집하여 배분하였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문화가 융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

학문과 절의, 문장을 갖춘 조선의 선비 중의 선비입니다. 퇴계 이황과의 사단 칠정논변으로 유명한 고봉 기대승(1527~1572), 조선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고경명(1533~1592)과 함께 선비가 가야할 사표師表의 길을 제시한 분입니다. 세분은 세상의 인심에 따라 나아가거나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처신함에 있어, 탁월한 재주와 아름다운 품성과 세상의 이치 깨달음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필암서원의 출입문으로 지어진 확연루廓然樓가 있습니다. ‘하서 선생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확연하게 크고 공평무사하다.’는 의미의 확연대공廓然大公을 집자한 말입니다. 널리 모든 사물에 사심이 없이 공평한 성인의 마음을 배우는 군자의 학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확연루’에 들어서면 강학공간인 필암서원의 청절당淸節堂이 있습니다. 청절당 편액은 우암 송시열이 쓴 하서 선생의 ‘신도비문’에 있는, 청풍대절淸風大節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청풍은 ‘맑게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고, 대절은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하서 선생의 인품과 사상을 이보다 잘 표현한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종과 인종 시대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곡학아세로 시류에 편승할 수 있었지만, 하

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묘사화 광풍의 여진이 몰아치던 무렵이었습니다. 김인후는 기묘사화로 희생된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파를 신원시켜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홍문관 부수찬이었던 그는 언관言官으로서의 임무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들을 사면해달라는 직언을 목숨을 내놓고 가감없이 했습니다.

하서는 인종이 보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 갑작스럽게 승하하자 모든 관직을 내려놓습니다. 하서는 관직보다 인간적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릇 학문의 본질은 지식에 있지 않고, 실행에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인촌 김성수(1891~1955)

인촌 김성수선생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1940년대, 호남지역에서 ‘북 오 산고보 남 고창고보’란 말이 있듯이, ‘북 인촌 남 무송’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친일파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손들은 부끄러운 조상을 가진 후예들이 되었습니다.

이념대립의 격랑에 휩싸인 분통터지는 ‘과거 지우기’입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자들의 지배수단인 이데올로기에 취해, 인간이 가장 중시해야 할 휴머니즘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독립자금을 비밀리

에 마련해주고,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우는 신문제작을 한 친일파도 있던 말입니까?

보전普專에 다니는 학생들을 자식보다도 사랑하였던 인촌, 경성방직을 세워 근대기업 경영으로 국민들에게 옷을 입히고 싶었던 인촌, 동아일보를 세워 문화운동의 횃불을 들었던 인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일본에 협조하는 척이라도 해야, 활동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일전쟁 때 일제의 강제징용을 지지하는 글을 실었다는 것이 친일파 판정의 결정적 근거입니다. 김준엽 총장도, 김수환 추기경도 일본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가서도 배우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인촌의 정신세계를 하나의 원의 입체로 그려 쪼개서 들여다보면 원의 중심에는 ‘홍익국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생관과 처세관이 3쪽씩 있습니다. 인생관 하나는 ‘공선 사후’ 정신이요, 둘은 ‘신의일관’이요, 셋은 ‘담박명지’ 정신입니다.

소년처럼 순수하고 어머니처럼 자애로웠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춘풍추상’입니다.

또 그에게는 세상을 경영하는 전략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소취대捨小

取大'입니다. '작은 것은 포기하고 큰 것을 취하자!'입니다.

둘은 실사구시입니다. 형식이나 절차보다는 실용·실질·실제를 중시합니다.

셋은 교육구국입니다. 미래를 기다리며 인재를 길러야 우리민족의 장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인촌이 지나온 삶보다 몇 배 훌륭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리고 항일투쟁을 지속적으로 했더라도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정부를 선호하는 한 이들 좌익세력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이념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한국인의 현대병입니다.

좌익세력들은 인촌이 보전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는니, 또는 축재의 수단으로 여러 사업들을 일으켰다는니 온갖 험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인촌은 일체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평가는 너의 몫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인촌의 의연한 자세일 것입니다.

인촌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부강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누가 칭찬해도 우쭐대는 성격도 아니었

고, 누가 비판해도 위축되거나 화내거나 변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판해도 또는 칭찬해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촌이었습니다.

민족상잔의 비극 6·25동란 중에서도 눈물 속에 피는 꽃을 바친 두 경찰관 안중삼(1903~1977)과 차일혁(1920~1958)

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에서도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탄생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로도 나온 쉰들러 사업가, 프랑스에서도 존경을 받는 독일의 콜티츠 장군, 적군조차 존경했던 롬멜 장군 등 시대의 불행과 아픔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영웅이 탄생하곤 했습니다.

20세기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 그 와중에서도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불멸의 꽃이 있었습니다.

안중삼 서장은 한국 전쟁 당시 전남 구례경찰서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상부로부터 민간인 480명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심 끝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을 풀어주며 "여러분을 모두 방면한다. 내가 반역으로 몰려 죽을지 모르지만, 혹시 죽으면 내 혼이 각자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 새 사람이 돼 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적선여경(積善餘慶)'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후손들에게 복이 오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안종삼 서장의 손자가 전남대의대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내과의로서 환자들을 정성들여 치료해주는 안영주의사입니다. 이 분은 페이스 북에서 만난 생면 부지의 페이스 북 친구들을 광주로 초청하여 술밥을 사준 분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경찰관 한 분이 차일혁 서장입니다.

1953년 7월 28일 휴전이 성립되었지만, 휴전선에서 총성이 멎었을 뿐 지리산에서는 게릴라 토벌전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리산 평정없이 남한의 평화 없고, 남부군 빨치산 대장 이현상 생포없이 지리산의 평정 없다.”고 단언할 정도였습니다.

차일혁은 일제 강점기 10대 후반에 중국에 건너가 중앙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2차 대전 막판에는 팔로군 무정의 휘하에서 항일게릴라전에 가담하였고, 해방 후 일시 국군에 참여하였다가 전투경찰대를 조직하여 공비토벌에 헌신하였습니다.

6·25 종전 직후 서남지구 경찰대 제2연대장으로 지리산 빗점골 전투에서 이현상과 빨치산 간부를 소탕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차일혁이 이현상을 직접 사살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부대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수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현상의

시신은 서울로 이송되어 창경원에 전시되었습니다. 전봉준을 연상시킵니다. 전시가 끝나자 이현상의 시신은 다시 지리산으로 반송되어 차일혁 부대본부가 있던 섬진강 백사장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차 경무관은 철모에 M1 소총으로 분골하여 섬진강에 뿌려주었습니다.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정중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경찰 간부 몇 이가 차일혁의 이런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차일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람이 아니오. 한 번 빨갱이는 죽은 뒤에도 빨갱이고 좌익이란 말입니까? 이제 공비토벌도 거의 끝나가고 있소. 나 역시 많은 공비를 토벌했는데, 그들 역시 같은 민족 아니오? 당신 죽어서까지 공비 토벌하러 다니겠소?”

차일혁은 공비토벌 과정에서 남한 내 유일했던 칠보발전소를 지켜내어 호남과 충남지방의 전기 공급을 가능케 했습니다. 칠보발전소 탈환은 75:2000이라는 병력 열세 속에 이긴 전투였습니다. 또한 공비토벌을 위해 불태우라고 지시를 받았던 구례 화엄사, 쌍계사, 천은사 등 천년 고찰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그는 전투경찰대를 지휘하면서 부하들

과 동고동락했고, 술선수범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사기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는 계급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전 중 철저히 민폐를 안 끼치도록 했고, 수복지역 부역자와 빨치산 포로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 한편을 인용하며, 눈만 뜨면 극좌 깡쟁이나 극우 깡통이 되어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른 아침 들판에 나가 일하는 농부에게 물어 보아라!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지리산 싸움에서 죽은 군경이나 빨치산에게 물어 보아라! ‘공산주의를 위해 죽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들은 왜 죽었는지 영문도 모른다 할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에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벌어진 부질없는 골육상쟁 동족상잔이었다고.”

작가이자 공연기획과 연극연출을 하였던 고 차길진이 차일혁의 아들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을 한 해 전에 예측했다고 합니다.

고 차길진 선생은 이제 떠나서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만나기 어려운 도사였습니다. 천공이나 명태균과는 완전

히 차원이 다른 도사道師입니다.

여러분도 도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교회나 절에 가서 복을 주라고 기도하거나 염불하지 마시고, 자신의 모든 욕망과 이해타산을 다 버리고, 그대를 위해, 그대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하십시오.

저는 진짜로 사랑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던 많은 것이 보이고 들린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 최고의 개혁인 ‘농지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울산의 강정책 농림부 차관(1908~?)

여러분의 뿌리인 울산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고, 가장 먼저 해가 집니다. 인근에 ‘간절곶’이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간절한 꿈이 배처럼 사과처럼 영근 곳입니다.

울산 김씨는 영남사람일까요? 광산 김씨는 호남사람일까요?

우문愚問입니다. 울산 김씨는 울산에서 전라도로 넘어와, 국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광산 김씨는 장성 인근 담양군 대전면 평장동이 본관이었으나, 전국으로 나가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원래 한 울타리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이 미워서 하는 소리입니

다. 저는 전라도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을 더 존경합니다.

공직 경험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만든 가장 뛰어난 제도는 농지개혁과 의료보험 그리고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또 정부고속도로 건설도 훌륭한 업적입니다.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분도 있고, 인촌 김성수를 말하는 분도 있지만, 실무적인 골격은 울산의 천재로 태어나고 자라서, 농림부 차관을 지낸 강정택에 의해 완성됐습니다.

토지를 지주로부터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토지개혁에서 최대 난제는 토지 확보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정택은 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농민의 지가 상환액은 최대한 낮추어서 매년 20%씩 6년간 상환으로 하고, 상환 기간 중에는 국세 등을 면제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이 120% 조항은 정부 재정부담을 이유로 농지개혁법 개정법률에서 1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농림부안의 친농민적·반지주적 성격은 실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살아있고, 그 덕분에 단기간에 ‘대지주의 나라’를 ‘소농의 나라’로 변모시킨 엄청난 개혁이 저렴한 사

회적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게 되는 농지개혁법의 성립에는 조봉암의 확고한 의지와 강정택·강진국의 뛰어난 현실인식·경험·능력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강정택은 1930년에 도쿄제대 농학부 농업경제학과에 진학했는데, 그 결정은 가난한 조국의 농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도쿄제대 전임교수 시절인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자신의 고향인 울산 달리를 중심으로 행해진 농촌위생조사와 농촌생활 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농촌 대상 최초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강정택의 비범함을 알고 있던 조봉암은 강정택을 농지개혁 팀장에 앉혀 진두지휘케 하려했으나, 그가 고사하며 고향 울산으로 피신해버려 삼고초려 끝에 농림부차관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강정택 선생은 울산 종하체육관을 지어 울산시에 기부했던 이 종하 선생의 생질입니다. 선생은 자식이 없던 외삼촌에게 자신의 첫아들을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KCC 정보통신 그룹의 이주용 회장입니다.

강정택 선생의 여동생이 국무총리를 지낸 이수성의 어머니입니다. 강정택 선생의 딸 강 경옥은 현재 대구에서 부부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택 선생은 농림부 장관을 사임한

후 농사시험장 고문으로 일했으며, 한국 경제연구소를 설립하여 농업정책을 연구 하였습니다. 6·25 전쟁 때 납북, 실종되었습니다.

한국 정보산업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이주용 회장은 종하체육관이 있던 자리에 종하이노베이션 센터를 건립해 울산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 입 장에서는 고종사촌형인 줄 알았던 사람이 생부生父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어느 지역이 나 지역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인 어른을 잘 모셔야 한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진주에는 김장하 어르신이 있고, 울산에는 이주용 KCC 정보통신 회장이 존경받고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며 살아계십니다.

우리 전남과 광주에는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도자로 어느 분이 계실까요? 지역 발전에는 정치·행정 지도자가 절반의 역할을 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이 발전 안 되는 실제적 이유는, 지역발전을 시킬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안 태어나고 사라지기만 하는 것은, 인물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의 공동 책임입니다.

나오면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로서는 영광이었지만,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는 되도록 나서지 말고 말을 아껴야 민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슬로건은 “미치지 않고는 미치지 못 한다”와, “배워서 남 주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미친 자처럼 삽니다. 미치도록 사랑할 때만이, 그녀에게 줄 선물이 보입니다. 나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 사람 쪽 팔려서 지역발전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여행하든, 그 지역이 잘 사는 길을 주막집에 들러 막걸리를 마시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는 길을.

장성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친구들 선후배분들도 많습니다. 아버님이 장성 남면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영광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교육에 감금된 아이들

- 아이들은 놀고, 배회하고, 질문하고, 유능해진다

몇 년 전, 콜롬비아 카우카의 숲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을 목격했다. 지켜보는 어른 없이 아이들이 마을 곳곳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다. 몇몇은 때를 지어 굴렁쇠 하나를 굴렸다. 몇몇은 숲 가장자리에서 서로 쫓아다니며 숲 안으로 들어가라고 서로를 부추겼고, 30초 뒤에 짹 소리를 지르고 웃음을 터뜨리며 숲에서 뛰쳐나왔다.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매우 작은 아이들도 자기를 보살피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아이들은 저녁 8시가 되어 부모가 불렀을 때야 집으로 돌아갔다.

이곳과 매우 다른 장소에서 살았던 내 부모의 어린 시절이 그랬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없는 곳에서 온종일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먹고 자기 위해서만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 수천 년간 내 모든 조상도 이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오늘날 나는 이렇게 사는 어린이를 한 명도 알지 못한다. 지난 30년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큰 변화를 겪었다. 2003년에는 미국 어린이의 오직 10%만이 집 밖에서 자유롭게 놀았다. 이제 아이들이 놀 때는 감시하는 어른이 있거나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본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 또한 극적으로 변화했다. 현재 자유로운 놀이의 탐구는 낭떠러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는 순식간에 동시다발로 발생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무작위로 어떤 아이들은 카우카의 마을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고 어떤 아이들은 미국 교외의 집 안에서 살게 한 다음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집중하는 지 확인할 수 없다.

내가 취한 방법 중 하나는 리노어 스커네이지라는 한 놀라운 여성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리노아가 이러한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게 된 것은 본인이 살면서 겪은 충격적 경험 때문이었다. 리노어는 그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연구하는 최고의 사회과학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아이가 집중을 어려워하는 이유와 집중력을 회복할 실용적 방안을 내놓았다.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생각

1960년대의 시카고 교외에서 다섯 살 난 한 여자 아이가 집에서 홀로 걸어 나왔다. 리노어의 학교는 걸어서 15분 거리였고, 리노어는 매일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갔다. 학교 근처의 도로에 도착하면 또 다른 아이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길을 건넌데, 가슴팍에 노란 띠를 걸친 열 살 난 이 남자 아이의 임무는 자동차를 멈춰 세우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도로를 건널 수 있게 안내하는 일이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리노어는 역시 어른 없이 혼자 학교 정문을 걸어 나왔고, 친구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네이크로바를 찾아 헤맸다. 가끔은 리노어의 집 앞에서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발야구를 함께 했다.

아홉 살이 되었을 때는 마음이 내키면 자전거를 타고 몇 마일 떨어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 다음 조용한 곳에서 독서를 했다. 다른 때에는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를 찾아 가서 놀았다. 배가 고프거나 날이 캄캄해졌을 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장면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충격을 받는다.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에서 아홉 살 난 어린 아이가 보호자 없이 홀로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속출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거의 모든 어린이의 삶이 이와 같았다. **아이로 산다는 것은 곧 동네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다른 아이들을 찾고, 자기들만의 놀이를 한다는 뜻이었다.** 어른들은 자녀의 위치를 어렵풋하게 알 뿐이었다. 자기 아이를 늘 실내에 잡아두거나, 걸어서 학교까지 배려다주거나, 아이들이 노는 옆에 서서 놀이에 끼어드는 부모는 당시에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리노어가 성장해 뉴욕에서 자기 아이를 낳고 키우던 1990년대 무렵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 누구도 감시하는 사람 없이 자기 아이를 바깥에서 놀게 하지 않았다. 지켜볼 어른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늘 집 안에 있었다.

한번은 리노어의 가족이 멕시코에 있는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매일 아침 해변에 모여 보통 자기들끼리 지어낸 게임을 하며 놀았다. 아들

이 리노어보다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리노어는 아들이 그렇게 신이 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한 주 동안 깨달았어요. 그때 아들에게 있었던 것은 제가 어린 시절 내내 가졌던 것, 바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걸요”

집에 돌아온 리노어는 아홉 살 아들이지가 의젓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자유를 맛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날 이지가 전에는 가본 적 없는 뉴욕의 어느 장소로 데려다주면 혼자서 집을 찾아오겠다고 말했을 때 리노어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집에 돌아올 계획을 짜는 일을 도왔고, 어느 화창한 일요일 리노어가 이지를 블루밍데일 백화점에 데리고 간 다음 아들과 헤어졌다. 한 시간 뒤 이지가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아이는 혼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왔다. 리노어는 이렇게 회상한다. “이지는 무척 행복해했어요. 좋아서 들떠 있는 것 같았죠” 이날의 사건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로 보였기에, 저널리스트였던 리노어는 다른 부모들도 자신감을 얻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일화를 기사로 썼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리노어의 기사에 공포와 혐오가 쏟아진 것이다. 리노어는 미국의 여러 유명한 뉴스쇼에서

‘미국 최악의 엄마’라고 비난받았다. 마치 아이가 홀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올 확률과 아이가 살해당할 확률이 똑같은 것처럼 말이다. 다른 엄마들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자기 자녀가 납치되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은 뒤 리노어는 깨달았다. 리노어는 왜인지 사람들이 오로지 “나쁜 엄마만이 자기 자식에게서 눈을 뗀다.”고 믿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리노어는 이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이제 아이들은 자유가 어떤 모습인지 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엄청난 속도에 어안이 벙벙했다. 이제 아이들의 삶은 “매우 급진적이고 새로운” 생각에 장악당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는 것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은 인간 역사에서 결코 없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함께 놀았고, 대부분은 감시하는 어른이 없었어요… 그게 인류 전체의 방식이었죠. 갑자기 ‘아니, 그건 위험해’라고 말하는 건, 아이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과거 모든 인간 사회의 생각을 전도한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빼앗아 간 것들

리노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이해하려면 이 변화를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요소는 가장 명백하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사람이 달릴 때, 어떤 형태의 운동에 참여할 때 집중력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대한 증거를 발견해왔다. 이를 조사한 한 연구는 운동이 어린이의 집중력에 “이례적인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엘 닉 교수는 이 증거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약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우 유산소 운동이 뇌 연결망과 전두엽, 자기 통제와 집행 기능을 돕는 뇌 화학물질의 생성을 돕는다.” 운동은 “뇌를 더 크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변화를 일으킨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너무 방대해서 이를 확신하는 것이다. 뛰어다니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대로 행동하지 못 하게 아이들을 막는다면, 아이들의 집중력과 전반적인 뇌 건강은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리노어는 이현상이 아이들을 파괴하려는 더욱 근본적인 방식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주요 과학자들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리노어에게 사실 아이들이 가장 중

요한 기술, 평생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때는 놀 때임을 알려 주었다.

이 같은 변화의 두 번째 요인, 놀이의 박탈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리노어가 어린 시절에 시카고 교외의 거리에서 놀던 장면을 떠올려보자.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때 아이들은 어떤 기술을 습득할까? 우선 어른 없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이는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파악”한다고 리노어는 말한다. 놀이를 생각해내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떠올린 놀이가 가장 재미있는 놀이라고 다른 아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알아”낸다. 아이는 언제가 자기 차례이고 언제가 다른 친구 차례인지 협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러므로 라인의 필요와 욕구, 그것들을 충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아이는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이 모든 것을 “배제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고, 길을 잃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리노어 지적 멘토 이저벨 벤키 박사는 칠레의 놀이 전문가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놀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발달의 세 부분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

법을 배운다. 두 번째 부분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유대”이며, 세 번째 부분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는 “살아 있다는 느낌”이다. 이저벨은 우리가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놀이는 견고한 인격의 토대가 되며, 이후에 어른들이 자리에 앉아 설명해주는 모든 것이 이 토대 위에 쌓인다. 이저벨은 오롯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유로운 놀이라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노어는 갑자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의 삶에서 빼앗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오늘날에는 마침내 아이들이 놀기 시작할 때도 주로 어른들의 감독을 받으며, 이 어른들이 규칙을 정하고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 리노어가 어렸을 때는 모두가 거리에서 소프트볼 경기를 하면서 규칙을 직접 정했다. 오늘날 아이들은 조직된 활동에 참여하고, 이때는 늘 어른이 개입해서 규칙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자유로운 놀이는 감시 하에 있는 놀이로 변했고, 가공식품처럼 대부분의 가치가 빠져나갔다. 이는 오늘날 “아이들이 이 기술들을 개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합을 하러 가거든요… 오늘날의 어린 시절은 옛날과

는 무척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성인기를 대비해줄 삶의 주고받기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결과 아이들은 “문제를 겪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짜릿함을 느끼지 못한다.” 어느 날 인지과학 교수인 바버라 사르네카는 리노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의 환경이야. 내가 이미 지도를 만들어 놔. 탐험은 그만 뒤’ 하지만 그건 유년기의 정의와 정반대되는 것이예요”

리노어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사실상 자택에 구금된 지금, 원래는 뛰어놀던 시간에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 한 연구는 이제 이 시간이 압도적으로 숙제와 전자기기 사용, 부모와 함께 하는 쇼핑에 쓰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2004년의 한 연구는 20년 전보다 학업에 매주 7.5시간을 더 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자벨은 놀이를 몰아내는 학교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목표가 뭔가요?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겁니까?” 아마도 학교 측은 아이들의 학습을 원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통찰을 얻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모든 증거가 사실은 그 반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뇌는 놀이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얻을 때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변한다. “가장 중요한 학습 기술

은 놀이예요. 우리는 놀이를 통해 배우는 법을 배우죠. 게다가 정보가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왜 아이들의 뇌를 정보로 채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20년 뒤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전혀 몰라요. 분명 우리가 바라는 건 적응력이 뛰어나고, 맥락을 평가할 능력이 있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기술이 놀이에서 단련돼요. 그러니 이런 학교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만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노어는 변화의 세 번째 요소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뛰어난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어린이와 10대 사이에서 불안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놀이의 박탈이라고 주장한다. 어린이는 놀이를 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도전을 박탈하면, 자라면서 공황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을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유능하다거나, 어른의 지도 없이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지 못한다. 하이트는 이것이 불안이 폭증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불안할 때는 집중력이 나빠진다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

리노어는 네 번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심리학 교수인 에드 데시와 그의 동료 라이언의 연구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자기 행동의 이유가 되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들의 연구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자기 행동의 이유가 되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음을 밝혀냈다. 여러분이 평소에 달리기를 한다고 상상해보자.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머리카락 훔날리는 바람, 몸이 힘차게 박차고 나가는 그 느낌이 좋아서라면 그건 ‘내재적’ 동기다.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달리는 것이 좋아서 달리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달릴 것을 강요하는 아버지 때문에 달리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것은 달리기의 ‘외재적’ 동기다. 이때 달리는 것은 달리기 자체가 즐거움을 줘서가 아니라 다른 보상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

리처드와 애드는 동기가 외재적일 때보다 동기가 내재적일 때 더 잘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기가 내재적일수록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쉬워진다.

리노어는 전과 극단적으로 다른 어린 시절을 사는 아이들이 내재적 동기를 얻을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일을 하면서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다. “우리는 흥미로운 것, 내 마음을 빼앗거나 전율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을 때는 집중하는 법을 자동으로 배우게

되죠.”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은 자기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성인의 지시에 따라 산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하루가 꽉 찼다면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감정적으로 자신을 흥분시키는지 알아낼 자유시간이 없다면 과연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네를 배회하던 어린 리노어는 자신을 신나게 하는 것을 알아내고 자신이 원할 때 그것을 할 자유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축구나 암벽 타기, 과학실험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노어는 이렇게 물었다. 다른 사람이 끊임없이 나의 주의력을 관리한다면 어떻게 주의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중력을 기르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리노어는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염려되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며 어른의 감시가 없는 자유로운 놀이시간을 아이들에게 주라고 부모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와 탐험할 자유를 촉진하고자 랫그로우라는 이름의 단체

를 만들었다. 그녀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 본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세요. 자신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활동이지만 현재 아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활동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들의 눈은 추억으로 반짝였다. 그들은 리노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성을 만들었어요. 술래잡기를 했고요. 한번은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했다는 남자를 만났어요. 가장 좋아하는 구슬이 뭐였냐고 물으니 진홍색에 소용돌이무늬가 있는 구슬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처럼 오래전에 무언가를 사랑했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이 그 남자에게 기쁨을 불어넣었죠.” 부모들은 과거에는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나무를 오르고, 시내로 나가서 사탕을 사왔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아이들이 똑같이 하도록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리노어는 현재 아이가 납치당할 위험이 무척 희박하다는 것과, 그들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 폭력 사건이 더 적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속해서 자기 아이들을 집 안에 머무르게 했다. 리노어는 자유로운 놀이의 명백한 이점을 설명했다.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 홀로 바깥에 내보내는 미친 사람이 되거든요. 리노어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다.

그래서 리노어는 자문했다. 부모의 마음을 바꾸려는 대신 부모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고립된 개인 대신 집단의 행동을 바꾸려 노력한다면? 이러한 생각과 함께 리노어는 중요한 실험에 참여하였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로어노크 애비뉴 초등학교는 1년에 하루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며 마음껏 재미를 찾는 것이 허용되는 글로벌 플레이 데이 활동에 참여키로 했다. 교사들은 큰 교실에 빈 상자와 레고, 오래된 장난감을 가득 채운 다음 뭘 하든지 마음껏 자기마음대로 놀라고 했다. 도나 버백 교사는 환희와 웃음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으나, 무언가 잘못 되었음을 깨달았다. 일부 아이들은 즉시 뛰어놀기 시작했지만 많은 아이가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오랫동안 기력 없이 구경만 했다. 당황하던 아이 중 한 명은 결국 구석에 누워 잠이 들었다.

도나는 그날 문득깨달음을 얻었다. “아이들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어떻게 끼어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서 놀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무척 많았다. 도나는 충격을 받았고, 슬픔을 느꼈다. 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달았다. 이 아이들의 집중력은 끊임없이 어른들의 손에 관

리되었다.

그래서 로어노크 애비뉴 초등학교는 리노어가 시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첫 번째 학교가 되기로 결정했다. **렛그로우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집중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어린 시절 내내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성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교는 일주일에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어른의 감시 없이 무언가 새로운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뒤 보고하는 것을 ‘숙제’로 내준다. 세상 속으로 나가는 모든 아이들은 자신들을 멈춰 세우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어른에게 보여줄 카드를 지급받는다. 이 카드는 이렇게 쓰여 있다. “저는 길을 잃거나 부모에게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거나 letgrow.org를 방문해주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주세요. 부모님이 늘 곁에 있나요? 오늘날의 범죄율을 1963년의 범죄율과 비교해 보면, 당신이 제 나이였을 때보다 지금 밖에서 노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제가 성장하게 놓아두세요.”

나는 1년 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애비뉴 초등학교로 향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했는지 신나서 말해주었다.

한 아이는 집 앞 거리에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세웠다. 또 다른 아이는 동네에 있는 강까지 걸어가서 그곳에 쌓인 쓰레기를 주웠는데, 이렇게 하면 “거북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아이였다. 이 소녀가 처음 한 활동은 엄마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나서 손을 마구 흔들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그때의 경험에 크게 감명 받은 것 같았다.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야망을 발견했다. 도나의 반에 L.B라는 소년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고, 수업시간에 딴 데 정신을 팔았다. L.B에게 독서나 숙제를 시키려던 어머니는 그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L.B는 모형 보트 만들기를 선택했다. 필요한 여러 재료를 모아놓고 매일 밤 치열하게 작업했다. 결국 작은 배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실물 크기의 마차 만들기를 완성했다.

그때 L.B는 더더욱 야심찬 일을 벌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바로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수륙 양용 마차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L.B는 물에 뜨는 마차 만든 법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제작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화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한다는 게 쿨하다고 했다.

L.B의 어머니는 “아이가 제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고 싶어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부심으로 빛났다. 아들에게 독서를 시키려는 몸부림도 끝이 났는데, 이제는 L.B가 늘 제작법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놀라웠다.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지시받을 때 L.B는 집중하지 못했으나, 놀이를 통해 무엇이 자신을 흥미롭게 하는지 알아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의 집중력은 활기를 띠며 몇 시간이나 쉬지 않고 배와 마차 제작에 몰입했다. 그의 담임선생도 그가 수업 시간에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읽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무언가 만들고 싶을 때 그를 찾았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나는 이 모든 깊이 있는 학습과 관련해 “누구도 L.B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저 아이를 내버려두었어요. … 아이 본인이 자기 머리로 직접 깨우쳤죠.”

L.B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여러 과학자를 통해 알게 된 집중력의 다른 측면에 대해 생각했다. 이 측면이 현재 우리가 아이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다섯 번

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덴마크의 심리학 교수인 얀 퇴네스방은 내게 본인이 ‘통달’이라고 칭하는 감각, 즉 자신이 무언가에 능숙하다는 감각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감각은 기본적인 심리욕구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한다고 느낄 때는 집중력이 소금에 전 달팽이처럼 쪼그라든다. L.B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현재 우리의 학교 제도가 너무 편협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L.B가 스스로 무언가를 통달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자 그의 집중력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삶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측면을 보고자 룡아일랜드의 부유한 지역 중학교를 찾았다. 이 학교의 교사인 조디 마우리시는 학생 200명 중 39명이 불안 문제를 진단받았을 때 학생들에게 랫그로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했다. 조디가 13살 아이들에게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을 때 많은 부모가 화를 냈다. 한 아이가 빨래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아이는 크게 낙담

했다.

조디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듣고 깜짝 놀랐다. 키가 크고 긴장한 14살 소년은 원래는 납치와 몸값 요구전화가 무서워서 걸어서 시내에 나가지도 못했다. 랫그로우 프로그램은 이 소년에게 서서히 자율성의 맛을 느끼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자기 빨래를 직접 했다. 한 달 뒤에 이 소년의 부모는 아이가 집 근처를 한 블록 달리게 해주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소년은 친구들과 팀을 이뤄 동네에 있는 숲에 요새를 지었고, 요즘은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소한 시합을 해요. 거기에 엄마들은 없어요.” 이 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가 닐 도널드 월시가 “삶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는 말이 떠올랐다.

리노어는 나와 함께 이 소년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와 인류 이전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물을 쫓아가서 잡아먹어야 했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동물에게서 몸을 숨기고, 다른 동물들을 찾아야 했어요. 심터를 지어야 했고요. 백만 년 동안 모두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그걸 전부 빼앗은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쉴 곳을 직접 만들지 않고, 숨바꼭질도 하지 않

아요. ...아까 그 소년은 기회가 주어지자 숲으로 들어가서 자기 컴퓨터를 지었어요.”1년간 성장하고 만들고 집중한 L.B와 그 어머니는 어느 날 그가 만든 수륙양용 마차를 띄웠다. 그러나 곧 가라앉았다. 실망스러웠지만 반드시 띄우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실리콘을 발라 마차가 떠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자랑스러웠어요. 물에 뜬 걸 보고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부모가 아이들을 렛그로우 실험에 참여시키는 것을 무척 불안해했다. 그러나 리노어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자부심과 기쁨, 흥분을 느끼며, 어찌면 약간 땀에 젖거나 배고파하면서 집 안에 들어와요. 부모들은 아이가 상황에 잘 대처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이런 경험을 하면 부모들은 너무 자랑스러워서 생각을 바꾸요. ‘정말 잘 했어, 기특하구나’ 하고요. 부모를 바꾸는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 부모가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감시나 도움 없이 자녀가 뭔가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만 믿어요. **아이들이 꽃피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부모들은 왜 진작 아이들을 믿어주지 못했는지 의아해해요. 사람들의 머릿속 그림을 바꿔야 해요.**”

내가 받은 교육을 되돌아보았다. 11한 살이던 나는 중학교에 입학한 첫날에 한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 주었다. 종이 위에는 작은 네모로 가득한 격자판이 있었다. 선생님은 “이게 너희들의 시간표다. 매일 몇 시에 어디로 가야 하는 지 나와 있다.” 나는 시간표를 쳐다보았다.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날 죄수 취급을 하는 거야?

손을 들고 왜 이런 수업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내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지 물었다. 그날 이후 모든 수업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늘 똑같았다. 시험을 봐야 하니까. 일주일 후에 입 닥치고 공부나 하라는 말을 들었다.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선택한 것들을 며칠이고 계속 읽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5분도 채 읽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나는 언제나 배우는 게 좋았고, 언제나 학교가 싫었다. 리노어를 만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것이 모순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학교를 싫어했던 이유는 수업이 주로 파편화된 암기식 교육이고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서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시험을 더욱 우선시하도록 학교제도를 급격히 바꾸었다. 놀이와 휴식을 비롯한 시험 이외의 거의 모든 것이 꾸준히 밀려났다. 이로써 표준화된 시험이 미국 전역에

서 증가했다. 이후 4년간 심각한 집중력 문제를 진단 받은 어린이가 22% 늘었다.

아이들이 집중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 준다는 요인들을 전부 되돌아 봤다. **우리의 학교들은 전만큼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전만큼 놀게 하지도 않는다. 미친 듯이 시험을 쳐서 불안을 가중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통달감, 즉 자신이 무언가를 잘한다는 감각을 기를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는 내내 많은 교사가 학교를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경고했지만, 정치인들은 학교 재정 지원을 이러한 흐름에 결부시켰다.

어린이들에게는 욕구가 있다

1960년대 말 매사추세츠에서 자녀들이 받는 교육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선생님도, 수업도, 교육과정도, 숙제도, 시험도 없는 학교를 열었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내게 학교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혀 다른 본보기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나는 그로부터 50년도 더 지난 뒤에 그들이 세운 학교에 도착했다. 서드베리 밸리스쿨이라는 이 학

교는 밖에서 보면 약간 허름한 다운타운에 비처럼 보인다. 이 학교의 건물은 숲과 외양간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거대하고 널찍한 옛날식 대저택이다. 모든 곳에 소나무 향기가 가득해서 마치 숲속의 공터에 들어선 듯하다.

18살 해나라는 학생이 내게 학교를 안내해 주며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었다. 피아노실 옆에 서 있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주위를 오고갔다. 해나는 이 학교에 오기 전에 평범한 미국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학교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너무 불안했고요. 억지로 학교에 가서 하루를 버틴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집에 돌아왔어요. 가만히 앉아서 별 도움도 안 되는 내용을 배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4년 전 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해나는 동료 학생들과 직접 체계를 만든다는 것 외에 서드베리에 다른 체계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시간표도, 수업도 없다. 학생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한다.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직원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온종일 무엇을 하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4살에서 11살인 아이들은

주로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몇 달씩 이어 지기도 하는 직접 만든 게임으로 <왕자의 게임> 어린이 버전 같은 서사시적 신화를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자기 종족으로 고블린과 용에 맞서 싸우며, 학교의 넓은 땅에 요새를 짓는다. 해나는 바위들을 가리키며 이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직접 이 요새를 짓고 있잖아요. 게다가 집단 내에 갈등이 벌어지면 그걸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더 많은 학생들은 무리를 이뤄서 요리나 도예, 음악 같은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 해나는 학생들이 그때 그때 배우고 싶은 것에 몰두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하면 그 주제에 달라붙어서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읽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의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 의학 분야를 열심히 찾아 읽고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 해요. 그러다 도마뱀으로 넘어가요. 도마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도마뱀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요. 요즘은 많은 친구들이 하루 종일 종이접기를 하는데 진짜 멋져요.”

해나는 규칙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규칙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매일 회의를 통해 학교의 모든 규칙을 만들고 투표에 부친다. 모두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살부터 성인 직원에 이르는 모두가 똑같은 발언권과 똑같은 한 표를 갖는다. 학교는 지난 수년간 꼼꼼한 규칙을 만들어 왔다. 그 규칙을 위반하다가 걸리면 모든 나이대의 학생을 대표하는 배심원단에게 재판을 받고, 배심원단이 처벌을 결정한다. 이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이나면, 어린 아이들도 매년 각 직원의 재계약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우리는 함께 걸으며 댄스 연습실과 컴퓨터실, 책으로 뒤덮인 벽을 지났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만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해나가 말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는 건 자신을 상자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저는 사실 정보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한다는 압박을 별로 안 받아요. 핵심 아이디어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뇌 안에 남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시험이 없다는 것도 내 시간을 배우는 데 쓸 자유를 줘요.”

나는 이와 매우 다른 제도에서 성장했기에, 처음에는 이 학교의 체계가 너무나도 기이해보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들 대다수가 미친 것처럼 날뛰거나 방종해지지

않을까? 서드베리에는 공식적인 읽기수업조차 없다. 학생들이 직원이나 다른 학생에게 잘 읽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분명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류의 교육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싶어서 이 학교의 졸업생들을 추적 관찰한 보스턴대학의 피터 그레이 교수를 인터뷰했다. 피터는 졸업생의 5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졸업생 대부분이 “자신이 관심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에서 놀라울 만큼 성공적으로 직업을 찾았다.** 학생들은 경영과 예술, 과학, 의학, 그 밖의 서비스업, 기술직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어갔다.”라고 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피터는 대부분의 인류 역사상 아이들이 서드베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렵채집 사회의 아이들에 관해 지금까지 쌓인 증거를 연구했다. **수렵채집 사회의 아이들은 놀고, 배회하고, 어른을 모방하고, 질문을 엄청 많이 하며 정식 교육을 별로 받지 않고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유능해진다.** 피터는 역사에서 예외는 서드베리가 아니라 현대의 학교라고 설명했다. 현대적 학교는 매우 최근인 1870년대에 고안된 것으로, 자리에 가만

히 입 닥치고 앉아 시키는 일을 하도록 아이들을 훈련해 공장 노동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피터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탐험하도록 진화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자연히 배우기를 원하고, 흥미로워 보이는 활동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학습한다. 아이들은 주로 자유롭게 놀면서 배운다.** 피터의 연구는 서드베리의 교육이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 아이들에게 특히 큰 효과를 보였음을 발견했다. 피터가 연구한 학생 중 서드베리에 오기 전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여겨진 11명 가운데 네 명이 학사학위를 받았고 5분의 1이 대학에 입학했다.

서드베리에서 해나는 아무 이유도 의미도 없는 **표준화된 학교 교육의 뒤통에서 벗어나자 “교육이 더욱 감사하고, 배우는 게 더 신나고, 여러 다양한 것을 추구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억지로 강요받는다느 느낌이 안 드니까 의욕이 생겨요.” 해나의 이 말은 성인과 아이 모두 의미 있는 일일수록 더 쉽게 집중하고 배운다는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에 잘 들어맞는다. 표준화된 교육은 학습의 의미를 너무 자주 없앤다. 이와 달리 진보적인 교육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붙여 넣으려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제에 관한 가장 훌륭한 연구에 따르면 진보적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내

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계속 배우고자 하고, 자신이 배운 내용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확률이 높다. 내게 이것은 가장 귀중한 형태의 집중력으로 보인다.

서드베리 바깥에 서서 해나는 예전에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눈 다른 아이들도 내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한 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집단 활동을 하러 우르르 뛰어갔다. 우리가 교육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거의 다 내던지면서도 여전히 읽고 쓸 수 있고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전전증증하며 아이들에게 시키는 교육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 준다.

개인적으로 나의 본능은 서드베리가 다소 지나치다고 말한다. 나는 더 큰 자유와 성인의 지도를 섞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른 진보적 학교들을 방문했다. 그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중앙복음학교였다. 그곳 학생들은 집단을 이루어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결정하는데, 내가 방문했을 때의 주제는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 있는가였다. 그러면 한 학기 내내 수업의 절반이 그 질문 중심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로켓 제작법에 관한 물리학, 인간이 달로 나아간 역사, 다른 행성에서 무엇이 자랄 수 있는가에 관한 지리학을 연구한다. 이 수업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 프로젝트로 이어져서, 학생들은 말 그대로 교실에서 로켓을 만들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너무 다른 제도에서 성장했기에 이런 대안교육에 계속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 되돌아왔다. 전 세계 성취도 평가에서 종종 가장 훌륭한 학교들이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인 핀란드가 이러한 진보적 모델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아이들은 7세가 되기 전까지 아예 학교에 가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때까지 그냥 논다. 7세에서 16세 사이의 아이들은 오전 9시에 학교에 도착하고 오후 2시에 하교한다. 숙제는 거의 없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도 거의 없다. 핀란드 아이들 삶의 고동치는 심장에는 자유로운 놀이가 있다. 법적으로 핀란드의 교사들은 45분 지도할 때마다 15분의 자유놀이 시간을 줘야 한다. 그 결과는? 핀란드의 어린이의 겨우 0.1%만이 집중력 문제를 진단받으며, 핀란드인은 세계에서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하나다.

어린이에게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른인 우리의 일이다. 이 문화에서 우리는 대체로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 자유롭게 놀지 못하게 하고, 전자

기기 화면으로 소통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집 안에 아이들을 가두며, 우리의 학교 제도는 대개 아이들을 무감각하고 지루하게 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은 에너지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약물처럼 아이들을 들뜨게 할 수 있는 첨가제가 들었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없다. 우리는 뇌를 망가뜨리는 대기 속 화학물질에 아이들을 노출시킨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이 세상의 잘못이다.**

리노어는 지금도 부모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렸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말해달라고 한다. 그때는 거의 언제

나 자유로웠던 순간이다. 요새를 짓고, 친구들과 숲속을 걸어 다니고, 동네에서 뛰어놀았던 때. 리노어는 부모들에게 말한다. “요즘 부모들은 돈을 아끼고 모아서 아이들을 댄스 수업에 보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주지 않아요.” 리노어는 계속 이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와는 다른 어린 시절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함께 그 시절을 되살려내려고 노력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하면 배를 만들던 L.B처럼 아이들이 다시 깊이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지음 김하현 옮김, 어크로스 발간. 14장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된 아이들」 370~406쪽을 줄여 정리했음.(편집자 김재수)

70~80대 노인이 50대로 돌아간 비결

노화를 늦추게 하는 것은 마음이
다

신체적 나이가 반드시 노화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화를 늦추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
요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가 1979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시험
을 벌였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환경으로 집을 꾸민
뒤 70~80대 노인들이 1주일 동안 모여
살게 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설거지와
빨래를 직접 하면서 20년 전 뉴스와 텔레
비전 프로그램,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력과 청력, 관절유연성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외모까지 훨씬 젊고 건강해졌습
니다.

40년이 지난 2019년에 같은 실험을 진

행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가 쓴 책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The Mindful
Body)』(프리티어 퍼냄)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45년간 노화와 질병을 연구해온 랭어
교수는 “노화를 늦추는 근본 해법은 마음
가짐”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식습관을 관
리하고 운동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
하는 것이 있다.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하
다는 사실이다.”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이 건강을 악
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
력이 나빠진다.”는 예기를 반복적으로 들
은 노인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
수를 받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연결돼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는 또 다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료에 설탕 함량을 다르게 표기하고는 당뇨병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그룹에는 ‘설탕함량 5%’, 다른 그룹엔 ‘설탕함량 20%’라고 표기했는데, ‘20% 음료’를 마신 사람들만 혈당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생각에 의해 혈당치가 달라진 것이다.”

청소년들이 참여한 실험에서도 ‘마음먹기’의 중요성이 확인됐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헬스장 머신과 운동에 빗대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업무는 로잉 머신 운동과 비슷하고, 걸레질은 훌륭한 상반신 운동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이들의 체중이 줄었고 신체질량지수가 낮아졌으며, 혈압이 낮아지고 허리와 엉덩이둘레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들의 노동 강도와 근무시간, 섭취하는 음식과 양은 시험 이전과 같았다. 유일한 차이는 자신이 하는 일을 운동이라고 믿게 됐다는 것뿐이었다.”

랭어 교수는 “사회적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나이를 자신이 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

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농도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5.6%인 사람은 ‘정상’, 5.7%인 사람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어차피 곧 당뇨에 걸릴 거야”라는 생각으로 혈당관리를 덜하고, 혈색소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보라도 규칙과 꼬리표를 만들 수 있다. 규칙이나 꼬리표에 얽매이지 말라.”

랭어 교수는 긍정적인 사고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거듭 일깨웁니다.

“어떤 꼬리표도 절대적이지 않다. 여러 수치와 건강지표들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경제사회연구원 이학영〉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글과 견주어서 하서 김인후 선생의 〈마음心〉에 대한 글을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아래에 적어본다.

하서 김선생의 〈마음心〉과 경敬에 대한 글

〈숙흥야매잡〉은 진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양과 학문에 정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경계하고자 지은 글이다.

소재 노수신은 이를 해석하고 주를 붙여 〈숙흥야매잡해〉라 이름 짓고, 퇴계와 하서에게 보내어 질정(質正)을 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1554년부터 1560년까지 수차례 왕복 논변이 벌어졌다. 서신 왕래를 통해 6~7년 동안 세 석학이 벌인 학술 토론, 우리 유학사상 일대성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노수신의 주해에 대하여 퇴계와 하서는 소재가 심학(心學)의 입장에서 선가(禪家)의 용어를 많이 쓴 점을 비판하고 수정을 가하였다. 소재는 토론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 정리하여 1560년 〈숙흥야매잡해〉를 완성하였다.

총 26개 항에 걸친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소재의 ‘군자는 마음으로써 일신의 주재를 삼는다(君子必以心爲一身之主宰)’에 대한 하서의 견해다.

마음心은 본시 일신을 주재하는 것이요 사람이 주재를 삼은 연후에 주재하는 것이 아니다(천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이 마음에 기가 섞여들어 바깥 사물에 유혹되면 마음이 외부로 치달려 몸에 문

득 주재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경敬으로써 바르게 하면 곧 마음이 저과 같이 주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소재의 말처럼 ‘마음으로써 일신의 주재를 삼은 연후에 경으로써 다시 일신의 주재를 삼는다.’고 한다면 당초에 마음으로써 일신의 주재를 삼을 때 (마음이 마음대로 달아난다면) 장차 어디에서 손을 쓰리요(경을 쓸 수 없다). 그러기에 주자도 말하지 않았는가.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신령하여 만변(萬變)을 주재하는 것이며 외물이 주재할 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집착하는 뜻이 있으면 곧바로 마음이 먼저 스스로 동하는 것이다.

이리되면 정부자(程夫子)의 말씀대로, 경으로써 안을 바르게 하려 해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직 흐트러지지 않고 엄숙을 유지해야만(경을 지녀야) 중심에 주인이 있어서 마음이 저절로 보존된다. 그러므로 ‘외물이 능히 주재할 바 아니다’는 말은 오직 경만이 주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속에 주가 있어 마음이 스스로 보존된다.’ 하였으니, 속에 주가 있다는 것은 경을 두고 말함이 아니겠는가.

이 대문은 바로 도학 곧 성리학의 핵심에 대한 논의다. 마음心은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으로 나뉘니 여기에서의 곧 도심이다. 〈중용장구 서〉에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언제나 일신의 주재가 되게 하고 [必使道心常爲一身之主]”의 바로 이 도심이

다. 이 도심이 몸을 주재하는데, 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도심은 바로 천명이요, 성性이요, 지선至善이다.

성리학의 주요 논제가 심心, 성性-理, 정情-氣, 천명, 도, 성誠, 경敬 등인데 이 대문은 그 중의 심에 관한 논의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기나 물욕에 가려지면 몸을 주재하는 힘을 잃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이태수서上李太守書>에서도 “마음이 어떤 일에 응할 때에 일호의 사이에라도 매이면, 그 본연의 정正을 얻지 못하여 능히 일신의 주제가 될 수 없고…”라고 논한 적이 있다. 이 때 기와 물욕을 밀어내고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 보존하여 몸을 다시 주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경’이다. 우리의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을 주재하는 것이 ‘경’이라는 말이다. 한 몸의 주재인 심의 중심에 ‘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 하서는 일찍이 <대학강의발>에서 “...경이란 것은 마침내 한 마음을 주재하고 명덕을 밝히는 강령으로써 성학의 시종이 되는 것이니...”라고 밝혔다. 또 ‘경’을 ‘성誠’과 관련지어 보면 그 중요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중용>에서 “성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니 성이 없으면 만물이 없다”고 하였다. 곧 성은 천도天道로 천지를 생성하고 운행하는 근원이요, 만물을 낳고 기르는 원동력이라는 말

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것도 ‘성’이다. 주자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 하늘이요, 그 하늘의 본바탕本然이 성聖이다. 그 성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의 생의 최고 형태”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성’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바로 ‘경’이라는 것이다.

하서는 인간이 도덕성을 추구하며 성誠에 이르고 다시 더 나아가 성聖에 이르는 데 ‘경’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오래 전(중종35년) 과거의 전시 책문에서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이 몸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이다. 만사는 이理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이理는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 ‘경’은 마음을 지키고 이理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학문의 처음부터 성현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경’은 사려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수렴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도리”라고 논술하였다.

이런 하서이므로 ‘경’을 이 <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골자로 보고 이 대문에서 특히 정밀하게 논의하였던 것이다.

- 김정수 지음 『전라도 사람들』 6권 「조선시대 김인후」

205~208쪽에서 가져옴

하서 김인후의 도학사상의 핵심을 마음心과 경敬으로 알기 쉽게 잘 정리한 명문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통해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

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는지 알 수 있다. 심학(心學)에 대해 최고의 관심을 쏟은 학자는 퇴계 이황으로 알려져 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불교의 명언이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흔히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알고 있는 이 말은 <화엄경>의 “마땅히 법계의 본성이 모두가 마음의 짓는 바에 달려 있음을 보라.”는 글에서 나왔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과 정신이 내 마음을 근원으로 생겨났다. 즉 마음이 모든 걸 지어낸다.**”는 뜻이라고 한다.

마음(心)은 본시 일신을 주재하는 것이요 사람이 주재를 삼은 연후에 주재하는 것이 아니다(천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이 마음에 기가 섞여들어 바깥 사물에 유혹되면 마음이 외부로 치달려 몸에 문득 주재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경(敬)으로써 바르게 하면 곧 마음이 전과 같이 주재하게 되는 것이다.

김기현 교수는 『자기 성찰의 정신』(84~85쪽)에서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길을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되돌아 자신을 살펴본 일이 있는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마시며, 이득거리를 보면 쫓아 나가고 해로운 것은 피할 줄 알면서, 정작 하늘이 나에게 삶을 준 뜻과

사람이 사람 된 까닭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심경부주])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성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퇴계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발동하는 순간이야말로 온갖 조화의 중추요 선악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마음은 세계 인식과 참여의 출발점이다. 『대학』과 『중용』이 “홀로 있음을 삼갈것(慎獨)”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뒤에 다시 살피겠지만, 이 ‘홀로 있음’은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시공간만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 공간까지도 함의한다. 마음자리에서조차 태만하고 방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의 방종은 세계의 인식과 삶의 길을 어지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퇴계는 예민한 존재감각 속에서 한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태만하게 가지면 그 곧 자신을 해치고 자신을 버리는[自暴自棄] 일입니다.”(『퇴계전서』)

그러므로 마음을 진실하고 맑게, 맑게 갖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평소 자신의 마음을 부단히 성찰하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 불교는 이를 ‘통찰명상(通察冥想)’의 이름으로 권장한다. 희로애락과 온갖 상상으로 끊임없이 번덕스럽게 출몰하는 표층의 심상 아래 맑고 고요한 심층의 참마음이 현전하리라는 것이다. 마치 구름이 흘러간 뒤에 드러나는 파란 하늘과 빛나는 태양처럼 말이다.

산양회 임원진

『퇴계·하서 학술회의』 참석

김재수 이사장을 비롯한 산양회 임원진 10여 명이 2024년 6월 27일 서울 발명회관에서 열린 <퇴계·하서 학술회의>에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 학술회의는(사)퇴계학진흥회(이사장 김종길)가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 경계를 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하서 김인후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 간의 학문적·인간적 교류 양상을 살피고 그 정신을 조명하기 위해(사)퇴계학연구원(이사장 김광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퇴계 이황과 하서 김인후, 영·호남이 만나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 고영진 광주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했고, 이향준 전남대 교수, 이형성 전북대 교수,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 강동석 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원 등 대다수 호남지역 연구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주도했다. 또 김재수 산양회 이사장도 좌장으로부터 하서 선생의 천명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청받고

‘하서의 천명도가 문집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추만 정지운의 책에 수록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 참석자 100여 명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하서 선생 후손을 대표해 울산김씨 대종회 회장단, 필암서원 및 문정공대 중증 집행부 관계자가 산양회 임원진과 동행했다.

필암서원 관계자

한국유교문화축전 참가

필암서원 관계자들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약칭 ‘한유진’, 원장 정재근)초청으로 9월 6일~7일 양일간 충남 논산에서 열린 제1회 한국유교문화축전 행사를 참관하고 왔다. 김상백 문정공도유사를 비롯하여 김진산 부도유사, 선병국 필암서원 도집강 등 일행 3명은 유학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세계 유산에 선정된 9개 서원 운영진들과 함께 “한국의 서원, 열린 좌담회”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시대변화에 대응한 전통 유학 교육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선도적 기능 등을 논의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9월 4일부터 8일까지 ‘K-유교,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4 한국유교문화축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교의 가르침을 재조명하고 글로벌화하여 지역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충청도와 논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주관한 가운데 5일간 펼쳐졌다.

K-유교 영어스피치 경연대회와 K-유교 국제포럼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한유진은 앞으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세계문화유산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암서원 산양회 홈페이지 임시 개통

필암서원 산양회는 2024년 9월 13일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올해 6월부터 8월 까지 구축해온 산양회 홈페이지를 시연한 다음, 이날부터 산양회와 하서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임시개통하기로 결정했다. 홈페이지의 각종 콘텐츠는 산양회 소개, 하서 김인후 선생, pdf.동영상, 세계유산 필암서원, 훈몽재·영귀서원, 알림마당 등 6개 카테고리로 대별하여 방문객이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앞으로 3개월간 각종 콘텐츠의 오탈자를 비롯한 오류사항 수정 보완과 기능 보강을 추가한 후 12월 중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방문자들에게서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호남사상 계승해 지역 발전 지속해 나가자

하서 김인후 선생 추모 추향제,

장성 필암서원에서 열려

하서 김인후선생(1510~1560)을 기리는 추향제가 9월 2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300여 명의 유림들이 참례한 가운데 열려 성황을 이뤘다.

필암서원이 주관하고 재단법인 하서학술회, 장성군, 사단법인 산양회, 울산김씨 문정공종중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22회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서강독회, 향제 봉행, 추모행사인 하서 선생 추모 글짓기 시상식과 초헌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향제는 전례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제 순서로 이어졌다.

향제 봉행은 초헌관 박준영 전 전라남도지사, 아헌관인 이흥규 김해향교 원로유림, 종헌관은 최성종 전 성균관 전례위원장인 장이 맡았다.

초헌관을 맡은 박준영 전 도지사는 ‘오늘에 필요한 주인 정신’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준영 전 도지사는 “유교정신은 과거에 매몰된 사상이 아니라,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주인정신의 산물이다”면

서 “주인 된 정신으로 호남의 사상을 이어가며 지역 발전을 지속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하서 김인후선생은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동국 18현 중 한 분으로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조선 중기 유학자입니다.

인종이 승하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 장성으로 내려와 후학 양성에 힘썼다.

1590년 선조 23년에 후학들이 필암서원을 창건해 학덕을 기리고 있다.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선생과 고암 양자징(1523~1594)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필암서원은 한국의 서원 9곳과 함께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됐으며 사적 제242호로 보물인 고문서 일괄(14책 64매) 등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한편 이날 제22회 하서 선생 추모백일장 으뜸상에는 진원초 5학년 조이엘, 버금상에 풍암초 5학년 오윤제, 장려상에 삼서초 5학년 김윤송, 북이초 5학년 임이루 학생이 수상했다.

필암서원 선비학당 박래호 학장은 “도학과 절의와 문장으로 오직 한 분이라고 추앙받는 하서 선생의 정신이 후세에도 이어지고 필암서원이 유교 정신을 만세토록 이어나가는 세계적인 아카데미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양수 전 군수

『하서 김인후 선생 일대기』 펴내

하서의 생애와 업적 재조명,

필암서원, 훈몽재 등도 소개

민선5기 장성군수를 역임한 사)필암서원산양회 김양수 이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한 『하서 김인후 선생 일대기』를 펴냈다.

총 3장 9절로 구성된 이 책은 하서 선생의 출생과 유년기 등을 기록한 2장1절, ‘시대적 배경과 인생 첫걸음’ 과거 급제와 세자시강원에서 조선의 12대 왕인 인종의 세자 시절 때 세자 교육을 맡았던 일 등을 기록한 2장2절, ‘과거 급제와 벼슬길’ 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장성으로 돌아와 은거하며 담양과 순창을 오가며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을 적은 2장3절, ‘인종 사별 그리고 낙향’ 순으로 서술했다. 특히 2장3절은 도학자이며 성리학자인 하서가 낳은 3남 4녀 중에 막내아들과 막내딸을 잃은 슬픔을 시로 남긴 내용을 적어 인간적인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서는 양자징에게 시집간 둘째 딸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일을 애통해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서는 향년 5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인종이 승하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한 지 15년 만이다. 하서는 자

녀들에게 인종이 승하한 『조선왕조실록』과 하서 선생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평가 등은 2장 4절 ‘길지 않은 오십 평생 삶의 마감’에 실었다.

제3장은 하서 선생의 업적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과 선생이 제자를 가르쳤던 순창의 훈몽재 그리고 하서 선생이 세상에 남긴 흔적 등을 적었다.

시인이며 도학자 그리고 성리학자이며 많은 제자를 가르친 교육자로서의 하서를 조명한 3장 1절 ‘도학’절의 문장을 겸비한 큰선비와 증종과 인종 그리고 명종과 하서를 문묘에 종사한 정조에 이르기까지 하서와 소통한 4명의 왕과의 이야기를 소개한 3장 2절 ‘하서가 소통한 네 명의 왕’을 기록했다.

쉬운 말로 풀어서 엮은 『하서 김인후 선생 일대기』는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책을 펴낸 김양수 전 군수는 “이 책은 사)지방활력연대, 사)필암서원 산양회 그리고 하서연구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 만들어졌다”며 “점차 희미해지는 선생의 발자취와 가르침을 재조명하여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펴내게 되었다”고 책을 펴내게 된 동기를 설명하였다.

저자인 김양수 전 군수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13대손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전라남도

행정혁신국장, 전라남도 감사관 등을 역임하였다.

서원 제향의례 전승에 앞장서는 필암서원

김진산 제례보존회장 전승교육 주도

한국의 서원 제례보존회(회장 김진산)가 주관하는 “서원 제향 의례 전승학교 공통교육”이 2024년 8월 10일 영주 소수서원 충효교육관에서 열렸다. 이 날 교육에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등재된 필암서원을 비롯한 9곳 서원과 한국의 서원통합관리센터 관계자, 대학교수,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하여 준비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장성 필암서원에서는 박래호 집강, 김만원 집강, 이충원 집강, 김진산 문정공부도유사, 김영수 문정공 총무유사 등 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김진산 부도유사는 이날 개강식에서 제례보존회장 자격으로 “제례 보존회의 활발한 교류와 제례 전승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에 앞장서자”는 취지의 개회사를 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필암서원, 3회에 걸쳐 자체교육 실시

삼복더위 무색한 수강 열기

필암서원(도유사 김상백)은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연인원 50여 명의 유림을 대상으로 서원 제향 의례 전승에 관한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장성 유림 지도자를 대상으로 열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전승학교’는 유서 깊은 필암서원 청절당과 집성관에서 운영됐다.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전승학교’는 국가유산청 지원을 받아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한국의 서원 제례보존회(회장 김진산)가 주관했다.

이 교육은 제향의례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례 전승 후계자 발굴과 일반인들에게 무형유산 가치를 전달하고 제향의례 참여 방법과 절차를 손에 잡히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다.

김상백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제례를 통해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서원 제향의례의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제향의례를 전승하고 보존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의 체계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육 강사로는 노강 박래호 장성균유도

회장, 목정 김성수 전 필암서원도유사 등이 참여했으며, 매회 15~20여 명의 유림 지도자가 참석해 수강 열기가 뜨거웠다.

김성수 전 도유사와 박래호 유도회장은 필암서원의 설립과 변천과정, 공간구성, 필암서원의 정신, 기능과 활동, 목죽도의 의미, 필암서원 중건 상량문, 하서 선생 신도비명, 후학 송시열의 찬, 묘표, 후학 김수항의 찬 등을 강학했다.

이어 김진산 한국의 서원 제례보존회장(필암서원 별유사)이 필암서원의 제향의례 절차와 진설, 홀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필암서원, 제례 보존 위한

한월당 선생 추계 묘제 참석

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의서원 제례보존회(회장 김진산)와 도동서원이 공동 주관하는 “세계유산 한국의서원 제례보존을 위한 한월당 선생 추계묘제”가 11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도동서원에서 열렸다.

도동서원은 조선 5현의 한 분인 한월당 김굉필 선생(1454~1504)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1568년 세워진 사액서원으로서 사적 제488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 곳 중 한 곳이다.

이날 추계묘제에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도동서원에서 봉행해온 전통 제례 방식에 따라 의식을 진행했다. 『제례보존회』 김진산 회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전통 제례는 조상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잘 전승하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 관계자도 우리 서원의 전통 제례문화가 202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성 필암서원에서는 재례보존회장인 김진산 부도유사를 비롯해 김상백 도유사, 박래호 집강, 김성수 전) 도유사, 김영수 총무유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가고싶은 세계유산, 머물고싶은 필암서원’

6월 29일 필암서원 선비축제 열려

지난 6월 29일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하서와 함께 걷는 선비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국가유산청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마련된 것이다.

장성군은 3년 연속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가고 싶은 세계유산, 머물고 싶은 필암서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였다.

오후 3시에서 7시까지 필암서원 경내에서 펼쳐진 행사는 1부 ‘필암서원 가는 길’과 2부 ‘하서와 함께 걷다’로 짜여졌다.

‘필암서원 가는 길’에서 참가자들은 선비 옷을 입고 청절당에서 서원의 옛 공부 방식을 체험했다. 경장각에서는 인종과 하서 김인후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죽도 목판 모형에 먹을 묻혀 화선지에 찍어봤다. 우동사에서는 제향을 체험하고, 장판각에서는 보물찾기를 했다.

2부 ‘하서와 함께 걷다’에서는 본격적인 선비축제가 열렸다. 팝페라 그룹 ‘빅맨 싱어즈’, 폴루티스트 ‘나리’, 퓨전국악밴드 ‘올라’ 공연도 함께 즐겼다. 참가자들은 가족천막 꾸미기 ‘선비의 나들이’를 하고, 장성 농산물로 구성한 간식바구니를 받았다.

‘선비의 가방(에코백) 꾸미기와 활쏘기, 대나무 물총놀이 선비놀이터, 농산물 직거래 등 즐길 거리도 있었다. ‘내가 아는 필암서원을 주제로 한 자유발언과 ‘인문학 토크’ 등 필암서원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장성군은 올해 8차례에 걸쳐 ‘필암서원 가는 길을 진행했고, 선비축제 ‘하서와 함께 걷다’를 3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9월에 열리는 선비축제에서는 인기 역사 강사인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장을 초청하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필암서원을 무대로 펼쳐지게 될 올해 선비축제가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필암서원에서 창극 〈선비길〉 공연

필암서원에서 10월 18~19일에 ‘제1회 전통공연예술제’가 열렸다. 2024년 전라남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선보였던 공연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창극 〈선비길〉이다.

창극은 판소리에 극적인 요소를 더한 전통극으로, 장성지역 예술단체 청강창극단이 공연하였다. 극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 필암서원에서 펼쳐지는 ‘실경’ 창극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18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공연은 전통악기 연주와 김은숙 가야금병창으로 막을 열었다. 청강창극단과 ‘100인 합창단’이 청절당, 화연루 마당 등을 무대로 〈선비길〉을 공연하였다.

19일 오전 11시부터는 창극 〈선비길〉 갈라 콘서트와 전통악기 연주가 펼쳐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최초로 열리는 전통공연예술제가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10월 26일 필암서원에서 ‘하서와 함께 걷다’ 선비문화제

도포 입고 선비의 삶 체험,

인문학 강연, 퓨전음악 공연도

장성군이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하서와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선비문화제를 연다. ‘2024년 세계유산 활용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선비문화제는 1부 ‘필암서원 가는 길’과 2부 문화제로 짜여졌다.

‘필암서원 가는 길’은 선비의 삶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전통 선비의 옷을 입고 옛 공부 방식을 체험하거나 인종 임금이 하사한 ‘묵죽도’ 목판을 화선지에 직접 찍어 본다.

필암서원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선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우동사 봉심과 장판각 근처에선 보물찾기도 했다.

2부 문화제에서는 퓨전국악을 들려줄 ‘서희선 위드 퓨전 사운드 혼’과 버려진 농약분무기로 만든 첼로 연주로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유니크 첼로 듀엣’의 공연도 펼쳐졌다.

이어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인 김산옥 소리꾼의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웠다.

공연 이후에는 인문학 강연도 열렸다. 조정욱 경상대 교수가 ‘조선 선비들의 그림과 필암서원 묵죽도를’를 주제로 강의

했다. 동양미술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 교수는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김홍도’,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등 20여 권의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 외에도 ‘선비 백일장’, ‘전통음식을 만드는 선비요리사’, 붓과 먹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선비화실’ 다양한 선비놀이가 있는 ‘선비의 놀이터’ 등 즐길 거리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훌륭한 학자와 청백리를 여럿 배출한 장성군 고유의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선비문화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필암서원 박병호 원장님, 산양회에 2,000만 원 후원

필암서원 박 병호朴秉濤 원장님이 본 산양회에 2000만 원 거액을 후원해 주셨다. 지난 춘향제에 꼭 참석해야 하는데 거동이 어려워 못 가신다면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이번 춘향제에 또 1000만 원을 후원해주시면서 필암서원이 퇴계서원과 쌍벽을 이루는 활동을 활발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해주셨다.

저지난해에도 1000만 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후원해 주시면서 필암서원과 본 산양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다.

지금까지 모아오신 귀중한 책과 자료를 기증해 주신다고 해서 분당 댁으로 찾아뵙고 가져올 계획이다.

100세를 바라보는 연세에도 정신은 정정하시지만 오직 거동이 불편하시어 대외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이 아쉽기만 하다. 원장님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산양회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아꿈나무재단 본회에 1,000만 원 지원

동아꿈나무 재단(이사장 김병건金炳健)에서 본 산양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어서 본 산양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산양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필암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과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서가를 갖추어 보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몇 년 전에도 1,000만 원을 본회에 지원한 바 있어 연구비 지원과 강연료로 값지게 사용하였다. 본 산양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김병건 동아꿈나무재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지원 덕분에 네이버에 필암서원 산양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전국적으로 본회 활동을 널리

알리고 회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음을 거듭 감사드린다.

본회회원 정재 김상덕金相德 종친 1,000만 원 후원

정재靜齋 김상덕 종친이 본 산양회에 1,000만 원의 거액을 후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회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손수 지원해 주신다고 전화를 주셨다.

정재 김상덕 종친은 울산김씨 문중에 크게 기여하셨던 모암 김노수金老洙 종친의 형님 철수澈洙 종친의 아들로 광주종친회에 여러 번 후원해 주셨던 분이다. 93세 고령에도 본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삼양그룹 창립 100년, 변화와 혁신 이어갈 것

순수 민족자본 근대기업 창립 100주년 기념식

김윤 회장 “분수 지키는 게 장수비결”

식품-화학-의약바이오 등 사업 확장

국내 대표 장수기업인 삼양그룹이 10월 1일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삼양그룹은 ‘인류에게 필요한 제품을 제공해 풍요

롭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비전 아래 한 세기 동안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성장세를 이어왔다.

삼양그룹은 1924년 수당秀堂 김 연수 창업주가 설립한 근대적 기업형 농장 ‘삼수사’로 시작했다.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근대기업으로 ‘민족자본 육성과 산업보국’을 목표로 농촌근대화와 합리적인 농장경영을 도입했다.

1931년 삼양사三養社로 바꾼 삼양은 ‘분수를 지켜 복을 기르고, 마음을 너그럽게 해 기氣를 기르며, 비용을 절약해 재財를 기른다’는 신념을 담고 있다.

삼양그룹은 국내 최초의 민간 장학재단을 만든 기업이다. 김 연수 창업주가 1939년 설립한 ‘양영회’는 8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68년 자제들과 함께 수당재단을 추가로 설립해 장학사업을 넓혔다.

1950년대에 식품과 섬유사업에 진출했다. 전쟁이 끝나면 국민들의 의식주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당은 ‘기업의 사명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며 생전에 산업보국을 강조했다.

삼양그룹은 1955년 울산에 하루 55톤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제당공장을 준공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설탕을 직접 생산해 외화 절감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1969년에는 전주에 폴리에스테르 공장을 세워 ‘트리톤’ 대량생산에 성공했고, 1986년에는 세계 9위 화학섬유회사로 성장했다. 1990년대에는 고부가가치 첨단사업인 의약바이오 사업에 진출하여 1993년에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생산에 성공하여 현재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양그룹은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가속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윤희장은 8월 성남시 삼양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열린 그룹 조회에서 “글로벌 스펙트럼 사업의 확장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100년을 맞아 사명감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촌 선생,

헌법 골격 세워 우리사회 기틀 마련

서울 계동 인촌고택에서 제헌절 행사

“인촌 김성수 선생은 헌법 골격을 세우면서 대화와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변영하는 데에 기틀이 됐습니다.”

지난 7월 17일 종로구 계동 인촌고택에서 헌법제정 과정에서 인촌의 역할을 강조하며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한 말이

다. 제헌절 76주년인 이날 인촌사랑방 및 동우회 회원 30여 명은 이곳에 모여 광복 이후 건국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촌선생을 기렸다.

박전지사는 “선생이 강조한 민족, 민주주의, 문화 등 세 가지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헌헌법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도 대지주였던 인촌선생이 자신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준 통합정신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인촌선생의 통합 노력은 후대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대 인촌사랑방 회장, 조강환 위암 장지연선생 기념사업회장 등이 참석했다.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104세 김형석 교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존경받을 만한 뜻과 업적을 남긴 이들 중 으뜸되는 분이 바로 인촌선생”이라며 기고문을 전해왔다.

필암서원 산양회 홈페이지 개통했다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
‘필암서원산양회’를 치면 검색된다

필암서원 산양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홈페이지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9월부터 기능 보강과 콘텐츠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12월 중순 정식 개통에 들어갔다. 이로써 필암서원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5번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원이 됐다. 특히 몇몇 서원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 주도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단체인 산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필암서원 산양회는 올해를 중흥기의 원년으로 삼아 ① 조직 정비, ② 홈페이지 구축, ③ 하서문고 개설 등 3대 사업을 추진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하서 김인후 선생과 필암서원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 촉구 및 참여 유도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하서 김인후 선생의 생애와 업적 소개,

필암서원의 연혁과 현황 소개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설립 이후 산양회의 사업 추진 실적 등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를 꼼꼼하게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산양회 홈페이지는 딱딱한 텍스트 위주의 홈페이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활자보다는 이미지를 선호하는 세태에 맞추어 그림과 사진, 동영상 등을 적절히 사용했다. 또 초창기에는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보의 전달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점차 방문자와 활발히 교감하는 쌍방향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산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려는 네티즌은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 ‘필암서원 산양회’를 치면 www.piramsanang.or.kr으로 연결된다.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컴퓨터에서는 물론 핸드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구축 업무를 수행한 산양회 집행부 실무진이 큰 자부심을 갖고 소개하는 콘텐츠는 단연코 산양회 20여 년의 생생한 역사를 담은 ‘하서 도학과 문학’이다.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는 이 학술 소식지는 종전 ‘산양회보’의 후신으로 그동안 창간호부터 40호까지 발간됐다. 산양회 홈페이지는 이 소식지를 한 권도 빠짐없이 축적한 아카이브(archive·기록보관소)이다. 디지털 자료 보관이 안 되어 있던 10여 권의 과월호도 종이책을 구해 일일이 스캔 작업을 거쳐 내용을 복원해 채워 넣었다. 또 지나간 자료의 재조명과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도 초점을 맞추어 신구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년 9월 20일 봉행한 필암서원 추향제 향사와 초헌관 특강 등 전 과정을 동영상에 담아 홈페이지에 3부작으로 나누어 올렸다. 또 유튜브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소개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필암서원 산양회’를 치면 시청이 가능하다.)

산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하부 메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양회 소개** 이사장 인사말, 산양회 개요, 설립 취지, 정관, 연혁, 조직도/임원, 주요사업, 찾아오시는 길
- **하서 김인후 선생** 요약, 하서의 반백년 생애, 조선 중기의 큰선비, 하서와 소통한 네명의 왕, 하서가 물려준 국가유산
- **pdf·동영상** 하서 도학과 문학, 학술논문, 단행본 저서, 동영상
- **세계유산 필암서원** 서원의 역사와 기능, 필암서원 개요, 필암서원의 위상, 지속가능한 운영
- **훈몽재·영귀서원** 순창 훈몽재, 곡성 영귀서원
- **알림마당** 입회안내, 기부금 공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의문 사항은 010-8899-6348로 문의하시기 바람

중용20장 애공문정장 哀公問政章

공자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_知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것은 인_仁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_勇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과연 내 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알게 되면 남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남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게 되면 천하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릇 천하국가_{天下國家}를 다스리는 데는 아홉 가지 벼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군주가 자기 몸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까운 혈연을 친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대신_{大臣}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못 신하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못 백성들을 내 아들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다양한 기술자들이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먼 지방의 사람들까지도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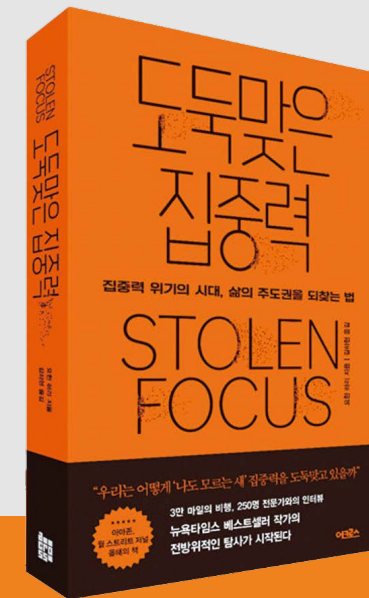
아홉째는 제후들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군주가 자기 몸을 닦으면 도_道가 바르게 서게 됩니다.

현인을 존중하면 도에 관하여 미혹함이 사라집니다.

- 도올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249~251쪽에서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지음
김하현 옮김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정보가 많아지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큰 경종을 울려준 책이다. 저자는 우리 뇌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집중력은 사라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면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인간 두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우리 뇌가 운전과 핸드폰을 쬔 시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 뇌의 집중력에는 손상이 간다고 책은 경고한다. 지난 5년간 성인의 집중력장애 질병이 5배 늘었다고 한다. 저자는 한 번에 하나의 일만 몰입해서 하라고 조언한다. 그 밖에도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은 만큼 돈을 버는 IT기업들의 산업구조도 고발한다. 스마트폰 스크린에 있는 '무한 스크롤 다운' 기능이 우리의 눈을 스마트폰에서 떼지 못하게 하는 기술임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샤워할 때 라디오를 끄고, 운전할 때 음악도 안 듣고 운전에만 몰입하려고 한다. -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어크로스 464쪽 / 값 18,800원